

# 교학대회 통해 본 동산 스님의 '불교정화'

## 동산대중사 열반 50주기 추모행사 잇달아



동산 스님(사진)의 열반 50주기를 맞아 불교의 정체성과 위상을 돌아보고 나아가야 할 길을 고찰 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수불)와 동산 문도회(문장 능가) 문도들이 5월 3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을 비롯 한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산대중사 문도 교학대회'를 개최했다.

범어사 및 동산문도의 여제와 오늘, 그리고 나아가길 이란 대주제로 시작된 교학대회는 도문 스님(조계종 원로 의원)의 기조발제로 시작했다.

도문 스님은 "동산 스님은 융성 진종 조사의 상좌겸 수법제자다. 그러나 동산 스님은 석가여래부촉법 제69세, 석가여래계대법 제 76세, 조선불교종흥을 제7조로 법맥을 잇는다"며 "이를 근원으로 동산 해일 대종사 원적 50주년 학술연구발표가 이루어져야 이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이 시대 불교가 나아가길 위해 동산 스님이 전했던 3대 불교운동 '불교의 생활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지성화' 운동이 답"이라며 "동산 스님의 정화 운동이 헛되지 않도록 불교가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부발제로 참여한 천제 스님(前조계종 법구위원장)은 성철 스님을 시봉하며 들은 '동산 스님의 사상에 대한 회고'에 대

해 발표했다. 천제 스님은 "여러 루머로 성철 스님이 동산 스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성철 스님은 정화 운동에 뜻을 함께 했으며 법맥 또한 용성 스님에 이어 동산 스님으로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흥선 스님(범어사 승가대 교수)의 '초보 사미의 정화 견문록'과 진관 스님(불교인 권위원회 공동 대표)의 '동산 선사의 간화선 전승 연구' 발표가 진행됐다.

### 추모다례제, 사진전 등 개최

### 청정승가 위해 정화운동 필요

### 혁신의지 계승 위한 연구원 설립

이어 동산 스님의 불교정화 운동에 대한 세부발제가 이어졌다. 법상 스님(조계종 포교연구실장)의 '동산 문도의 정화의식과 실천내용'의 발표에서 스님은 "동산 스님의 정화 정신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정화는 급진적인 방법이었던 평소 승가가 부처님의 법에 따라 실천하고 살았다면 이런 이쁜 과정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산 문도의 시대적 역할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동산문도의 정화의식과 실천내용'에 법상 스님(조계종 포교연구실장), 법음 스님(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의 '불교혁신을 위한 동산 문도의 역할', 덕산



동산문도회가 5월 3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동산대중사 문도 교학대회'를 열었다.

스님(불교교단사연구소)의 '94년 4·15 중앙총회 회의록 분석과 융성문도 평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법음 스님은 "조선불교조계종에서 현대 불교조계종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의 근현대사는 융성 대종사와 동산 큰 스님 등 범어문도 선대 스님들의 고난과 결의, 신심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오늘날의 조계종은 창종의 정신이 실종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음 스님은 "현대불교사의 혁신운동이었으며 현 종단체제의 기반을 이룬 1994년 종단 개혁에 대해 냉철한 평가와 성찰이 있어야 한다."

융성 대종사와 동산 스님의 신심과 원력, 혁신 의지를 계승하고 진정으로 구세대의 의지를 실천하고자 한다면 범어사가 나서 권위 있는 연구원을 설립하길 제안한다. 이것이 문도들이 두 분 스님의 유훈을 받들어서 불교 중흥을 이루고 세상을 맑히는

길"이라고 발표했다.

마지막 발표로 김광식 동국대 교수의 '금정총림' 설립의 역사와 범어사의 정체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김광식 교수는 "범어사 스님들은 총림지정을 위한 다각적인 분석, 준비, 대안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2012년 11월 7일, 중앙총회에서 금정총림으로 지정, 결정됐다. 1960년대 중반부터 50년간 범어사의 정체성, 역사 및 문화를 재검토한 고투의 결실이다. 앞으로 범어사의 역사와 문화에 담긴 사상, 정신, 지성 등은 더욱 치열한 연찬을 통해 재정립해야겠지만 그 요체는 원용살림, 문도화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범어사와 동산문도회는 동산대중사의 열반 50주년 추모다례제를 5월 11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봉행했다. 또한 5월 3일~11일 동산대중사 50주기 사진전을 범어사 보제루에서 개최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 佛都 부산, 봉축 '환희의 등' 밝혀

### 5월 1일 송상현 광장서 개막 점등식

부산에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환희의 등이 밝혀졌다. 부산연등축제조직위원회(위원장 수불)는 5월 1일 송상현 광장에서 '2015 부산연등축제 개막 점등식'을 개최했다.

사부대중 50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불교TV연등공양모임(회장 하정선)의 회원들의 육법공양으로 시작된 행사는 부산시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연등재 보존회 스님들의 연산재 봉행이 어엿다. 연산재는 이번 네발 참사로 희생된 수불은 영가와 세월호, 천안함, 연평도 해전 등 유주무주 고통들을 천도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부산연등축제조직위원회는 '추모의 보리수 등'을 설치해 아픔을 함께하고 자비의 뜻에 동참했다.

축하공연으로는 놀이패 온터의 난타공연이 마련됐으며 삼귀례와 반야심경봉독으로 점등식의 시작을 알렸다.

점등사에서 수불 스님(부산불교연합회 회장)은 "오늘 우리 부산시민의 염원이 모여 거룩한 등불로 타오르는 인연으로, 한 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자비사상과 평화운동이 온 세계에 널리 퍼지기를 기원 드린다"고 전했다.

무원 스님(부산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은 봉축사를 통해 "아름다운 불교문화를 선보이고 이 자리를 찾는 많은 시민들이 불교문화를 접하고 알 수 있도록 합시다"라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이번 부산연등축제는 시민의 축제로 재해석되고 발전되었다는 평이다. 전통등 전시 화장과 각 사찰에서 봉사하는 전통문화체험부스는 품격 높은 불교문화를 알리고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도록 이끌어 호평을 받았다.

한편, 송상현 광장에 이어 부산 광복로에서도 대형탑등을 비롯한 38개국 전통복장 어린이등 전시도 5월 11일~17일 펼쳐진다. 5월 17일에는 오후 4시 구덕종합운동장에서 관불의식 및 봉축연합대회, 오후 7시에는 연등행렬이 개최된다. 행렬 구간은 구덕종합운동장-대청로-국제시장-광복로-부산근대역사관까지 총 3km이다.

이날 행사에는 대형장엄등 100여점과 소형장엄등 200여점, 개인행렬등을 든 연합단, 기수단들이 대거 동참해 거리를 장엄하며 퍼포먼스를 펼치며 봉축의 기쁨을 나눌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2015 부산연등축제 개막 후 시민들이 장엄등을 감상하고 있다.

##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개막

### 5월 2일 대구 신천둔지에서

불교의 전통등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는 '1015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가 5월 2일 대구 중동교 옆 신천둔지에서 개막했다. 5월 5일까지 4일동안 이어진 관등놀이 축제 기간에 범섬과 황룡, 봉황 등 다양한 모양의 대형 전통등이 신천 주변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또 국악과 풍물 공연, 청소년 댄스 공연

대회와 시민노래자랑 등 다양한 공연과 시민참여 행사가 열렸고 유등 띄우기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행사가 있었다.

대구불교총연합회 회장 덕문 스님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쁜 날을 맞아 인천의 스승이시며 만종생의 복전인신 부처님의 가피가 은누리에 두루하여 자유, 평화와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달구벌 관등놀이와 연등회를 봉행한다"고 인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달구벌 관등놀이가 5월 2일 대구 신천둔지에서 열렸다.

## 장병환 대만판장대 교수, 동백국제상 수상

동백문화재단(운영위원장 수불)은 5월 1일 부산 안국선원에서 장병환 교수(대만판장대학)에게 국제문화박람회 미술 문화 부문 대상을 시상하고 격려했다.

시상식에는 주한대만대표부 총영사 일행 및 신도 500여명이 참석했다.

대만의 유명 서예가 장병환 판장대학 교수는 현재 국제서예협회장을 역임 중이며 10년 전 안국선원의 현판 제작에 참여

하고 한국과의 교류에 힘써왔다.

수불 스님은 장병환 교수 외 임영발 교수(대만국립대동대학)에게 교육교류부금상, 이순은 사장(대만학가신문사)에게는 문화교류부금 상을 각각 수여했다.

동백문화재단은 45년 동안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지 격려하며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 온 단체이다.

하성미 기자

## 통도사, 5월 23일 터울림 한마당 방생 대법회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는 '터울림 한마당 방생 대법회'를 5월 23일 오후 2시 초산 유원지에서 봉행한다. 행사는 1부 방생법회에 이어 2부 경로잔치, 불자 노래 자랑 및 축하 공연이 이어진다.

통도사는 취임 후 통도사 인근의 초산 유원지 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보존 및 수환경보호를 위한 '평안평사기 운동'을 전개해왔다.

통도사는 "35억 불사금을 모연하고 초산유원지 땅을 매입했다. 난개발과 수환경 훼손을 막아 생명사랑 운동을 펼칠 방생법회를 봉행한다"고 밝혔다.

(055)381-1288 하성미 기자

## 선덕여왕 송모다례제 '황룡사 탐세우기' 등

선덕여왕 송모회(회장 권대자)가 대구 시민과 함께하는 제29회 선덕여왕 송모다례제를 5월 2일 대구 2.28기념중앙공원 내 특설무대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 류병선 (사)대구불교신도회 총연합회장, 권대자 송모회장, 대회장 문화갑(대구시장), 대구시의회 이동희 의장, 우동기 교육감, 류형우 예총회장, 류병선 (사)대구불교신도회 총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식전 문화행사로 풍물놀이, 한울복춤, 한국환경노래보급협회원성어즈 산하단체(지휘자 박영호)의 뮤지컬 '선덕여왕'과 '물의 노래' 등이 펼쳐졌다.

다례제는 여진제막, 헌축, 현향, 헌화, 여왕어진 참배순으로 진행됐다. 팔공총림



5월 2일 개최된 선덕여왕 송모다례제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은 "삼국통일을 염원하고 백성들의 안녕을 갈망했던 선덕여왕의 거룩한 뜻을 기리고 그 정신을 본받아, 하루 빨리 남북통일을 성취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제례의식으로는 헌다와 대구시립무용단의 공연, 황룡사 호국의 탐세우기, 시민헌화가 이어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세계 곳곳에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국내를 비롯하여 지구촌 후진국 빈민촌의 어둠과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불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군소종단의 통합을 염원하며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하는 한국 군소종단들의 모임체



## 땅에 떨어진 불교의 위상 군소종단들이 하나로 뭉쳐 불교를 바로 세우는 밑거름이 됩니다.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종단 지도자 여러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여기 저기 기웃거리다가 자신의 마음에 뜻이 같지 않으면 순식간에 등돌리고 무리져서 이리 가고 저리 가는 부실종단 지도자들은 더 이상 먹물 옷을 욱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부실종단이 난립하니 승려의 자질과 역량이 사회와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수행자의 출현이 어렵다는 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상과 독선, 옹고집 명예와 권력야욕 벗어 던져 버리고 **이제는 초발심으로 돌아가 종단은 다르나 모임에는 통합되고 단결된 종단들이 되어 불교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각자의 본분을 충실히 다져야 합니다.** 적으면 적은대로 불교에 누를 끼치는 종단에서 벗어나 불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주역이 됩니다. 가입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단 정식 법인 등록된 종단 및 단체가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승려교육 통일. 품수통일 불교행사통일 종단활동 지원 가사 통일  
단일금강계단 설치하여 합동 품수식 및 합동 수계법회. 단일 합동 고시위원회 활성화  
사단법인 :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大韓佛敎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敎 宗團 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敎 高僧長老團.  
世界佛敎 考試委員會. 大韓佛敎 大宗師 聯合協議會. 韓國佛敎 元老長老團. 韓國佛敎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敎 宗團 人權委員會. 국제부다보사단

대표전화 02)733-5665. 733-5670.  
팩 스 02)733-5615. H.P : 011-229-6061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그늘진 곳에 같이 웃고 같이 울며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하는 봉사단 불자를 모집한다.

**불자라면 남,녀 누구나 환영합니다.**